

‘영상 시인’ 영화감독 타르코프스키 만나다

광주극장·광주시네마테크 5일~20일 회고전 ‘이반의 어린시절’ ‘희생’ ‘잠입자’ 등 6편 상영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가 올해 첫 기획전으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영화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1932~1986) 회고전을 마련했다.

오는 5~20일 타르코프스키의 장편 데뷔작 ‘이반의 어린 시절’ (1962)부터 유작으로 남은 ‘희생’ (1986)까지 총 6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타르코프스키는 시적이고 철학적인 요소를 도입해 영화 미학의 혁신을 꾀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스웨덴 출신 거장 임마르 베리만은 “만약 영화를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타르코프스키와 같은 위대한 영상 시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극찬했다. 1990년대 그의 작품이 국내에서 선보여지면서

‘타르코프스키 붐’이 일기도 했다. 기획전 첫날 관객을 만나는 작품은 ‘희생’이다. 타르코프스키의 유작이자 1984년 소련 정부를 벗어나 망명한 뒤 만든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이다.

희생을 통한 구원을 논하는 이 작품은 신을 믿지 않았던 주인공이 전쟁 소식을 듣고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 국제비평가협회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했다.

이튿날 선보이는 영화는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이반의 어린 시절’ (1962)이다. 타르코프스키가 서른살 되던 해 만든 첫 장편 영화로 블라디미르 보고몰로프의 단편소설 ‘이반’을 각색했다. 그의 두번째 장편 ‘안드레이 루블료

프’ (1966)는 중세 러시아의 전설적인 이콘 화가인 안드레이 루블료프의 삶을 다뤘다. 예술을 통한 인간존재의 구원이라는 타르코프스키의 예술관과 예술가로서의 소명의식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 역시 칸영화제(1969)에서 국제비평가협회상을 받았다.

그로부터 3년 뒤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과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솔라리스’ (1972)는 폴란드 스타니스와프 렘의 동명소설을 각색했다. 타르코프스키의 첫 공상과학 영화로, 우주정거장에 갇힌 심리과학자 크리스는 그곳에서 수 년 전 자살한 부인 하리와 마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3일 상영되는 ‘잠입자’ (1979)와 ‘겨울’ (1975)에는 타르코프스키의 아버지 아르제니 타르코프스키의 시가 인용돼 있다. 타르코프스키는 소년 시절 부모가 이혼했지만 소련의 유명한 현대 시인인 아버

지 대한 존경심을 영화를 통해 표현했다. 공상과학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잠입자’는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 드나들 수 있는 잠입자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칸영화제에서 에큐메니컬상을 수상했다.

‘겨울’은 타르코프스키가 자신의 삶을 투영시킨 가장 내밀하고 사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기억의 유기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비선형적인 서사가 돋보인다.

이날 오후 7시 10분 ‘열세살 수아’의 메가폰을 잡은 김희정 감독(조선대 교수)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되었다.

전체 15세 관람가. 선착순으로 각 작품의 주요 장면이 실린 영화표를 증정한다. 일반 관람료 8000원·극장 후원회원 2편 무료(‘안드레이 루블료프 1만원’·문의 062-224-282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잠입자’



‘희생’

광주문화재단 5기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출범

21명 자문위원 위촉 첫 회의

광주문화재단 제5기문화예술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최근 제5기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상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광주문화재단의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역점사업 계획에 대한 질의와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또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정책보고서 ‘문화비전2030’의 9대 의제를 화두로 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의 주요 키워드는 ‘문화분권’, ‘광주의 문화정책’, ‘문화생태계’ 등이었다.

한편 제5기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자문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

간은 2년이다. 자문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영삼(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 ▲김형중(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부) ▲변길현(광주시립미술관) ▲정유하(나산실용예술중학교) ▲조광철(광주시립민속박물관) ▲조덕진(무등일보) ▲박성용(KBS광주방송총국) ▲이영미((주)집합도시) ▲임인자(독립서점 소년에서) ▲김진아(전남대학교문화전문대학원) ▲노정숙(서양화가) ▲최현도(조선대학교 경영학부) ▲이상재(광주은행 광주시청지점) ▲추말숙(문화예술교육공동체 연나무) ▲이미연(SKT) ▲김태완(광주과학기술원) ▲이기형(아시아문화원) ▲이한호((주)쥬스컴퍼니) ▲김해경(소춘아트팩토리) ▲박선욱(광주여자대학교 무용학과) ▲배미경((주)더킹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대 국악학과 오늘 지음홀서 가야금 발표회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는 1일 오후 7시 예술대학 지음홀서 가야금 발표회 ‘봄의 속삭임’을 연다.

올해 17회를 맞이한 국악학과 가야금 연주회는 14명의 국악학도들이 실력을 펼친다.

먼저 대표적인 기악 풍류음악인 ‘평조회상’ 중 ‘염불도드리’로 문을 열고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경기민요 경북공타령을 무대에 올린다. 18현과 25현으로 연주하는 ‘아리랑 변주곡’과 25현 가야금 4중주로 편곡한 ‘홀로 아리랑’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전체 출연진이 승려 시인 현안이 쓴 시 ‘하마단’에 황병기가 음을 입힌 작품을 연주하며 마무리한다.

박재은·송수연(4년), 김예슬·박세라·선



지향·이소호·조수연·최우경(3년), 이채선·주지숙(2년), 김다혜·김하늘·오예진·이다건(1년)씨가 무대를 꾸미고 이호형씨가 장고를 맡는다. 무료 관람. 문의 062-530-305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동’ ‘감금’ ‘장애’ ...은폐된 소수자들 삶

윤수중 전남대 교수 역음 ‘소수자들의 삶과 기록’

‘이동’, ‘감금’, ‘장애’ 등은 소수자를 대변하는 키워드다.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삶, 무엇인가에 감금된 삶, 신체적·육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삶 등은 일상과 변별될 수밖에 없다. 대체로 우리사회 소수자들의 삶은 유리되거나 은폐돼 있다.

소수자들의 삶과 일상을 가감없이 기록한 이색적인 책이 발간됐다.

소수자들 당사자와 도우미, 친구 혹은 부모가 기록한 글을 한데 묶은 ‘소수자들의 삶과 기록’ (문학들)이 그것. 전남대 사회학과 윤수중 교수가 엮었고 11명이 기록자로 참여했다.

윤 교수는 소수적인 것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글로 표현해낼 수 없는 이들을 만나게 됐다. 다행히 이를 대신해주는 도우미들이 있었고, 면담 채록의 결과가 한 권의 책으로 탄생했다.

책은 ‘이동’, ‘감금’, ‘장애’, ‘주체성’이라는 모두 네 가지 주제로 묶였다.

먼저 ‘이동’에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움직이는 삶을 주목한다. 광주의 작은 대안학교에서 만난 탈가정 10대의 증언은 우리 시대 10대들의 또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두 번째 키워드 ‘감금’은 병역거부자의 이야기, 군대안의 감옥 이야기 등을 이룬다. 전자는 삶을 온전히 자신이 의미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초점을 맞췄다. 후자는 군대내 감금장소로서의 영창의 안과 밖을 근무자와 수용자의 시선을 통해 보여준다.

세 번째 키워드 ‘장애’에서는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인물, 발달장애아를 키우는 이의 일상을 매개로 우리사회 소수자들의 아픈 삶과 고달픈 일상을 가감없이 전한다.

마지막 키워드 ‘주체성’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의 자기고백 글, 성소수자부모들의 인터뷰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재개발을 소재로 한 소설 ‘열집 남자’는 도심 한복판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담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내부 철거 내년으로 미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내부 개선을 위한 철거 작업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광주시립교향악단 등 문예회관에 상주하는 8개 시립예술단체들은 올 연말까지 대극장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회관은 28일 올 하반기 예정됐던 대극장 객석과 무대 교체를 위한 철거 작업을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예초 회관은 사업 1~4차년도마다 별도 공사 계약 발주를 진행하려 했지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일괄 발주하

기로 했다. 올해는 용역 적격 심사와 설계 입찰 공고를 진행하는 등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할 계획이다.

회관은 총 사업비 249억원(국비 20억원·시비 22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말까지 4년에 걸쳐 시설 개·보수를 단행한다.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까지 대극장 객석·무대장비를 포함한 내부 개선 작업을 마치고 2021년에는 소극장, 2022년에는 기계장비 교체와 주차장을 정비하며 사업을 완료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풀뿌리여성소모임소통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광주여성재단이 ‘풀뿌리여성소모임소통프로젝트 경진대회’ 참가자를 8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경진대회는 지역의 우수 여성소모임들을 시상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여성소모임 육성프로젝트’와 ‘여성친화도시 확산 프로젝트’로 나뉜다. 광주에서 활동 중이거나 모임을 계획 중인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경진대회 심사는 1차 서면, 2차 현장 공개로 진행된다. 1차 서면심사에서 선

정된 13개 팀은 각각 50만원의 운영실비를 지원 받아 5개월 여 동안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소모임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13개 팀은 2차 결과발표회와 현장공개심사를 통해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시상금을 차등 수여받게 된다.

신청은 광주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양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gjwf2019@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053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1686,50㎡(510평) 건물:3,000,80㎡(907,74평)
지상2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 (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55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136,20㎡(41,20평) 건물:265,58㎡(80,3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15억 문화전당역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하남동 (준주거지역)
토지:979,70㎡(296,36평) 건물:1928,89㎡(583,49평)
지상4층 매매가:65억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434,44㎡(131,4평) 건물: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55억 이마트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5700㎡(1700평) 건물:6500㎡(1900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130억
건물2층, 신법적용 350베드 가능 요양원 40베드 별도, 주차장넓음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토지:5,385㎡(1629평) 매매가:60억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분할가능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상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64억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15,953㎡(4825평) 매매가:12억1천만 원
자연취락지구, 10m도로접
- ★ [토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원
임야, 계획관리지역

경매

- ★ [공장]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토지:3441,1㎡(1040,9평) 건물:1361,5㎡(411,9평)
감정가 16억8천6백만원 최저가 16억8천6백만원
- ★ [근린주택]영광군 법성면 토지:708㎡(214,2평) 건물:266,61㎡(80,6평)
감정가 5억2천8백만원 최저가 5억2천8백만원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대지 25351㎡(7668,7평)전원주택단지적합
감정가 27억1천2백255만원 최저가(70%)18억9천8백79만원
- ★ [공장용지]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대지:11065,1㎡(3347,2평)
감정가 24억7천8백만원 최저가 19억8천3백만원
- ★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거리 대지:11139㎡(3369,5평) 건물:5530,56㎡(1612,5평)
감정가 40억3천5백만원 최저가(70%) 28억2천4백만원
- ★ [양계장]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대지:136695,78㎡(41350,5평) 건물:24737,02㎡(7482,9평)
감정가 62억7천2백만원 최저가(70%) 43억9천만원
- ★ [숙박시설] 광산구 우산동 대지:627,8㎡(189,9평) 건물:2122,01㎡(641,9평)
감정가 35억7천만원 최저가 25억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